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6 “우리도 편다”



광주 상무축구단 사무국 직원들이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불사조의 저력’ 보여 주겠다

### ■ 상무축구단

“2008시즌 ‘불사조’ 상무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국 직원들 먼저 호흡을 맞추며 결승선을 향해 달려겠습니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의 사무국 직원들이 올 시즌 달걀찌를 넘어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 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에 나선다.

2003년 출범한 광주 상무는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한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2004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 2008년까지 새 구단을 창단한다는 조건으로 리그에 참여해 왔던 만큼 올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지난 3시즌 내리 최하위를 기록했던 만큼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2008시즌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명색이 프로 축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상무 직원들은 모두

### 올해 프로구단 중위권 도약 온몸 응원

운동에 일가견이 있다. 축구는 기본이며, 수영, 달리기, 탁구 등 ‘스포츠 올스타’들이 모였다.

상무 선수들과 직원들의 선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홍보팀 이경재 대리는 “4년간 수영을 하면서 폐활량을 키워왔다”며 “직원을 모두 5km에 출전하지만 50km를 달린다는 다짐으로 마라톤에 임해, 3월9일 성남과 첫 경기를 하게 되는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축구 선수출신인 이한우 운영팀장은 자타가 공인한 지구력과

끈기로 상위 입성을 노리고 있다.

김동석 홍보팀장은 30년 넘게 탁구를 해 온 ‘탁구맨’으로 생활 속에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힘찬 질주를 다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주무를 맡았던 마케팅 담당 강종원 대리와 현 주무 최민성 대리는 기초 훈련부터 러닝을 소화하면서 체력을 단련해 왔다. 최 대리는 광주에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과 훈련

### 전직원 ‘만능 스포츠맨’ 이번엔 일내겠다

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추위도 거뜰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유소년팀의 박하나, 윤상하 사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차세대 꿈나무들과 경기장을 뛰면서 쌓아온 체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며 마라톤 참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여름부터 1kg 아령을 들고 보조구장 트랙을 돌면서 체력을 키워왔던 운영팀 장혜영 대리는 상무팀의 여성파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팀 내 최고 몸무게를 자랑하는 장재현 사무국장은 절보기와 다르게 중학교 때 육상·축구 선수로 활약했던 만큼 마라톤에 자신 있다.

건장한 40여 명의 선수를 뒷바라지를 책임지고 있는 장 국장은 “술선수범해 달려면서 상무의 돌풍을 기원하겠다”며 “올 시즌 상무가 광주를 연고로 뛰는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 보여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서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희섭 휴식 위해 입원

### 두통·어지럼증 호소... 2차 진단결과 이상은 없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KIA타이거즈의 최희섭이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최희섭은 지난 24일 대전 선병원에서 2차 검진 결과 의학적으론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세가 계속돼 이날 밤 팀 지정 병원인 광주 한국병원에 입원했다.

심리 상담 결과 두통이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다는 진단에 따라 최희섭은 2~3일 정도 입원해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추가적인 검진을 받게 된다.

관계자들은 최희섭이 지난 시즌 국내 무대로 복귀하면서 부상, 4주간 군사기초 훈련, 파혼 등의 일을 겪었던 만큼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 스프링캠프를 처음 참가한 만큼 새로운 환경과 메이저 리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량에 적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최희섭도 스프링캠프를 중단하고 귀국한 직후 “출발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따듯한 곳에서 운동을 하려 보니 몸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최희섭은 당분간 훈련을 중단한 채 안정을 취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31일부터 시작되는 미야자키 스프링캠프 참가도 불투명해 KIA의 타선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경주 초반 난조

### PGA 뷰익인비테이션서널 1R

‘탱크’ 최경주(38·나이카골프)가 올해 처음 참가한 만큼 새로운 환경과 메이저 타이거 우즈(미국)와의 대결에서 초반 난조를 보였다.

최경주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 토리파인스골프장 북코스(파 72·6천874야드)에서 치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뷰익인비테이션서널 1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치는 데 그쳤다.

최경주는 2라운드를 치르는 남코스(파 72·7천568야드)에 비해 한결 쉬운 북코스에서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해 공동 51위에 머무르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 화순초 스키부 금메달 행진

### 스키 불모지 한계 깨고 잇단 전국 제패

### 예산·장비는 부족 하지만 투지 ‘활활’

화순초등학교(교장 서경원) 스키부가 전남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동계스포츠에서 금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남 사상 첫 초등부 금메달을 획득해 화제가 됐던 화순초등학교 스키부가 올해도 남보를 전해왔다. 화순초 이윤진·윤민지·이원지(이상 5년), 류세정(4년) 선수는 지난 24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열린 제38회 회장배전국스키대회 크로스컨트리 초등여자부문 단체전에서 1위로 골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7일부터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스키장에서 열린 ‘제1회 중재배 전국초등학교 스키대회’에서도 금 2, 은 2, 동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4학년 막내 류세정 양은 크로스컨트리 2.3km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 2관왕에 올랐다. 역시 4학년 막둥이 최재영 군도 크로스컨트리 2.3km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화순초등학교의 거침없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빠듯한 운영비와 스키장 시설이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값있다.

화순초등학교가 스키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0년이었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비로소 스키부를 정식 창단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당초 육상부를 지도하던 이재양(47) 감독이 체력강화와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 스키를 지도하면서 화순초의 ‘무한도전’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눈도 잘 오지 않는 지역에서 무슨 스키부냐며 ‘무모한 도전’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던 이 감독은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

스키장에 갈 형편이 안돼 학교 운동장에서 인라인 롤러를 타고, 주말에는 활강 연습과 오르막 연습을 위해 경사가 이루어진 화순 전대병원 주차장을 찾아 롤러 스키를 탔다. 마땅한 장비도 없어 전남스

키협회에서 장비를 빌려 대회에 출전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스키협회의 지원이 없으면 동계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나마도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단체전 엔트리(8명)를 채울 수 있는 10명(남 5·여 5)의 선수만 강원도 용평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지역 내 중학교에 스키부가 없어 연계육성도 힘들다. 국가대표상비군에 오른 화순초등학교 출신의 김지민(여·화순중 1년)과 김현민(화순제일중 1년)도 여전히 이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환경에서 지난해 동계체육대회에서 강원·경기·전북 등을 제치고 금 1·은 3·동 3을 획득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에야 정식 창단하는 모양새를 갖추 수 있었다.

이재양 감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고 따라준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어린 학생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며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일부터 강원도 용평에서 전지훈련 중인 화순초등학교 스키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화순초 제공)

## 지성·영표 ‘우정의 맞대결’

### 27일 밤 11시 FA컵 32강전 4라운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대표적인 태극전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만유(31·토트넘)가 FA컵 16강 결투에서 ‘우정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박지성의 만유와 이영표의 토트넘은 27일 밤 11시(이하 한국시간) 2007-2008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32강전 4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장소는 맨유의 홈구장인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

박지성과 이영표가 맞붙으면 잉글랜드 무대에서 네번째 대결이 된다.

이 둘은 2005년 10월23일 처음 한 그라운드에서 했는데, 박지성이 왼쪽 미드필더, 이영표가 왼쪽 풀백으로 나와 직접 맞닥뜨리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

두번째는 2006년 4월17일, 박지성이 오른쪽 공격수로 나와 이영표와 경쟁을 펼쳤으며, 박지성은 이영표 뒤에 볼을 빼앗아 웨인 루니의 골을 도우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작년 2월5일 세번째 대결에서는 이영표가 플라임을 소화한 반면 박지성이 후반 23분에야 뒤늦게 출전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다.

이영표는 이번에도 왼쪽 풀백으로, 박지성은 왼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지성이 워낙 활동 반경이 넓어 이 둘이 자주 부딪히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문제는 맨유에 측면 미드필더 요원으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라이언 깁스, 나니 등 포지션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어 박지성은 선발 출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

선발로 나오지 못하면 교체 출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성은 지난 6일 에스턴빌라전에서 부상 이후 처음 홈구장에서 선발로 나온 것과 관련 “굉장했다. 팬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땐 한심스러웠다”며 이번 FA컵에서 꼭 뛰고 싶다는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지성과 이영표의 네번째 맞대결에서 누가 웃을 지 확실치 않은 만큼 맨유와 토트넘 중 어느 팀이 승리할 지도 짐작하기 어렵다.

## 허정무호 첫 담금질

### 27일 파주 NFC 소집 훈련

허정무호(號)가 닷을 올리고 ‘월드컵의 바다’로 출항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7일 오전 11시 ‘약속의 땅’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모여 첫 담금질을 시작했다.

이번에 소집되는 대표팀은 오는 30일 오후 8시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질 남미 다크호스 칠레와 친선경기 및 다음달 6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치러질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예선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에 출전한다.

허정무호는 2월6일부터 6월22일까지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요르단을 상대로 홈출근 트레이닝 방식의 3차 예선 여섯 경기를 치러내야 한다. 이어질 최종예선은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이 200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맞붙는 두 상대는 만만찮은 팀들이다.

한국 축구는 남미 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 남미팀과 역대 전적에서 2승6무13패로 철저히 밀리고 있는데다 지난 8년 간 남미팀을 상대로는 무승(4무6패)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칠레와는 첫 대결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탈출해야 할 때다.

질레진보다 훨씬 중요한 상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1998년 방콕아시아게임에서 한번 맞붙어 2-3으로 진 적이 있다. 중앙아시아의 북병으로 밤잠할 수 없는 적수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리 회원권**

골프 클럽	회원권	시세	1,700
골프 클럽	회원권	시세	1,900
골프 클럽	회원권	시세	2,100

상담문의 (062)351-0095

26일(토)

- ▲07/08 NBA <올랜도 : 디트로이트> (09 : 00·MBC ESPN)
- ▲2008 호주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결승 (11 : 30·MBC ESPN)
-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 : 삼성화재>(14 : 30), 여자부<한국생명 : 현대건설>(17 : 00·KBS N SPORTS)
- ▲07/08 여자프로농구(KB국민은행 : 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27일(일)

- ▲07/08 잉글리시 FA컵 4라운드<아스날 : 뉴캐슬>(00 : 00), <위건 : 첼시>(02 : 00), <맨체스터 Utd : 토트넘>(23 : 00·MBC ESPN), )
- ▲2008 PGA 뷰익 인비테이션서널 3R(05 : 00·SBS골프)
- ▲07/08 NBA <인디애나 : 마이애미> (05 : 30·SBS스포츠)
- ▲07/08 V리그 남자부<현대캐피탈 : LIG손보>(13 : 30), 여자부<도로공사 : KT&G> (16 : 00·KBS N SPORTS)
- ▲2008 호주오픈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 (15 : 00·MBC ESPN)